

모자 간 눈 맞춤(eye-contact)이 어머니의 통제 행동과 유아의 정서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ye-Contact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 Children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ntrol Behaviors and Children's Emotions

송하나(Hana Song)¹⁾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eye-contact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ntrol behaviors and emotions of preschool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6 children aged 6, and their mothers. The children and mothers were observed taking part in a writing task for 15 minutes, and two coders analyzed the amount of eye-contact between children and mothers, mothers' verbal and nonverbal support and coercive control, and children's emotions in the task setting.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coercive control and nonverbal support significantly accounted for children's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eye-contact and mothers' verbal support was significant. In particular, mothers' behaviors significantly affected children's emotions only when eye-contact occurred. Mothers' behaviors in the absence of eye-contact did not affect children's emotions. The discussion section included an analysis of the social function of eye-contact on the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presented.

Keywords : 눈 맞춤(eye-contact), 비언어적 상호작용(nonverbal interaction), 어머니 통제 행동(mothers' control behavior), 유아의 정서(emotion of preschool children).

¹⁾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ana Song,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110-745, Korea
E-mail : jni4ever@skku.edu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눈으로 말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사회적 상황에서 눈 맞춤은 자신의 의사와 기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부모-자녀 사이의 눈 맞춤은 자녀의 출생 직후부터 어머니가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자녀와의 애착관계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Lohaus, Keller, & Voelker, 2001). 즉, 눈 맞춤은 모자 간 상호 작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눈 맞춤은 비언어적(nonverbal)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스처나 손동작과 같이 언어적 발화가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분명히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비언어적 행동들에 비해 눈 맞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흔히 나타난다(Ahn, 2013). 또한 눈 맞춤은 타인의 행동을 손으로 지지하거나 수신호를 보내는 등의 다른 비언어적 행동들과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Podrouzek와 Furrow(1988)가 제안한대로 눈 맞춤을 언어적 행동 및 비언어적 행동 모두와 구별되는 준언어적(semilingual)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눈 맞춤이 언어적 의사소통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두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의사 전달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유아와 아동의 눈 맞춤을 다룬 선행 연구들(Furrow, 1984; Iverson, Capirci, Longobardi, & Caselli, 1999; Podrouzek & Furrow, 1988)은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눈 맞춤을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눈 맞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을 훈육하거나 학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

을 제시하고 있다.

Goldman과 Fordyce(1983)의 연구에서는 눈 맞춤을 한 뒤 아동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를 따르는 순응 행동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눈 맞춤을 했을 때는 눈 맞춤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verett 등(2005)은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눈 맞춤을 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눈 맞춤에 칭찬이 수반된 조건에서 순응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눈 맞춤 없이 지시만 내린 조건에서도 유아의 순응 행동은 증가하였으나 눈 맞춤과 칭찬을 함께 제시한 조건에서 순응 행동이 가장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눈 맞춤의 의미 강화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유아에게 눈 맞춤을 하게 한 후 통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눈 맞춤으로 인해 아동의 행동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닌지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눈 맞춤 자체가 아동의 정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여 왔다. 특히 사회적 단서를 지각하는데 서툰 어린 유아들이 눈 맞춤으로 인해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눈 맞춤의 정서적 영향력을 검증하려 하였다.

몇몇 연구자들(Helminen, Kaasinen, & Hietanen, 2011; Senju & Johnson, 2009)은 눈을 응시하는 행위가 자율 신경계의 각성을 증가시켜 얼굴 표정을 인식하거나 정서적으로 반응하는데 민감하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눈 맞춤의 정서 유발 기능을 지지하고 있다. 눈 맞춤의 정서적 기능에 대해 Hamlet, Axelrod와 Kuerschner(1984)는 눈 맞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만 쳐다보세요’

와 같은 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눈 맞춤이 독촉을 받는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leinke(1986) 역시 눈 맞춤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기분을 느낄 때 아동의 저항과 거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불안이나 공포가 높은 아동은 눈 맞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는 얼굴 재인 과제에서도 민감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Brunet, Mondloch, & Schmidt, 2010). Ahn(2013) 역시 상대방에게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눈 맞춤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부정적인 눈 맞춤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아동은 상대방이 공격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Kleinke, 1986; Vida & Maurer, 2012).

그러나 눈 맞춤의 정서적 기능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눈 맞춤이 상대방에게 부정적 정서뿐 아니라 긍정적 정서 경험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Goldman과 Fordyce(1983)는 눈 맞춤이 친근감 혹은 친밀감의 의미로 다가올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5세 유아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아일수록 모녀 간 눈 맞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enenson, Morash, & Petrakos, 1998).

이처럼 모자 상호작용에서 눈 맞춤은 유아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과 결합하여 의사소통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 속에서 모자간 눈 맞춤 양상이 변화하는 추세이다. 아이와 어머니가 마주보며 면대 면(face to face)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는 병렬식(side to side) 상호

작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병렬식 배치에서는 눈 맞춤 뿐 아니라 다른 비언어적 단서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가 언어적 수단 혹은 스마트 기기만을 가지고 유아를 통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더욱이, 유아가 혼자 활동에 몰두하는 경우, 어머니가 언어적 방식만으로 유아를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눈 맞춤과 언어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유아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강압적 통제가 유아들에게 짜증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데 비해, 유아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행동은 가장 긍정적인 정서 발달과 관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Eisenberg와 Fabes(1994)는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가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처벌적인 양육 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Vitaro, Barker, Boivin, Brendgen, & Tremblay, 2006). 이와는 반대로, 자녀와의 개방적인 대화에 초점을 둔 어머니의 통제 방식은 유아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어머니의 지시에 순응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Kochanska & Aksan, 1995), 유아가 정서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유아의 정서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Fabes, & Spinrad, 1998). 한편, 눈 맞춤은 어머니가 영아나 유아에게 친밀감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애착 행동의 하나인 동시적 상호작용의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Lohaus et al., 2001; Wolff & Ijzendoorn, 199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눈 맞춤이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행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유놀이 상황 보다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아를 더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고(Lee, Kim, & Park, 2004) 위험 상황에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유아를 통제하는 일이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아가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눈 맞춤은 어머니의 민감성 지표로 알려지는데 비해 어머니가 강압적 통제 상황에서 유아와 눈 맞춤을 하는 것이 유아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것이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눈 맞춤의 역할을 어머니의 지지 뿐 아니라 강압적 통제의 차원에서 알아보려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통제 행동, 모자 간 눈 맞춤, 아동의 정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눈 맞춤이 어머니의 통제 행동과 아동의 정서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 효과를 검증하려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통제 행동, 모자 간 눈 맞춤, 아동의 정서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모자 간 눈 맞춤은 어머니의 통제 행동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강남의 I, K, R유치원에 재원중인 6세반 유아들 66명(남아 38명, 여아 28명)과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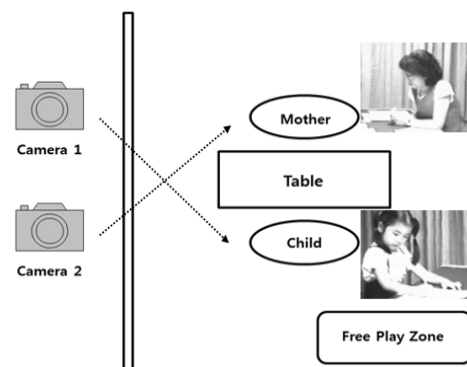
어머니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유치원 알림장과 교사를 통해 연구의 내용을 알린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74가정 중에서, 실험 오류 및 녹화 오류가 일어난 사례를 제외하고 6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유아들의 평균 월령은 78.55개월($SD = 3.63$ 개월)로, 남아는 78.63개월($SD = 3.87$ 개월), 여아는 78.42개월($SD = 3.34$ 개월)이었다. 참여한 어머니들은 여섯 명을 제외하고 모두 30대였으며 전원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실험 상황을 구성하였다.

1) 실험 공간 구성

유아가 재원하는 유치원 자료실에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실험 공간을 구성하였다. 유아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간단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 두 개를 중앙에 두고 책상 위에는 받아쓰기 견본과 종이, 연필, 연필깎이, 지우개를 두었다. 또한 구석에 자유놀이를 할 장난감을 배치하였다. 공간 뒤쪽으로



<Figure 1> Observation setting

유아의 눈에 띄이지 않도록 작은 구멍을 뚫고 받침대에 고정시킨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 외에 화면 분할기, 마이크로폰, VCR용 타임코드 제너레이터, 비디오 텍, 앰프와 오디오 녹음기를 설치하고 송출된 모니터용 화면으로 실험 상황을 주시하였다. 특히, Figure 1과 같이 눈 맞춤을 측정하기 위해 모니터를 2unit으로 분리하고 두 대의 카메라를 어머니와 유아의 얼굴 및 상체 윤곽에 각각 클로즈업 시켜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였다.

2) 실험과제 및 진행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쓰기 과제는 Sogon(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개입 상황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Sogon은 다양한 상황에서 모자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는데 유아가 조금 어려운 수준의 쓰기 과제를 할 때 어머니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유아에게 직접 도움을 주거나 간섭을 하는 것 외에 눈짓을 하거나 고개를 흔드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빈번히 관찰되었다. 따라서 쓰기 과제를 통해 어머니의 통제 행동과 눈 맞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원 과제에서는 한 페이지 정도의 어려운 일본어와 한자를 유아가 받아쓰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글과 한자가 섞인 100자 정도의 견본을 보고 받아쓰도록 하였다. 견본은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교하여 하루를 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무', '자동차', '오늘', '선생님' 등 유아에게 친숙한 단어들을 포함시켰다. 이후 예비 실험을 거쳐 글자를 아는 유아들에게도 너무 쉽지 않도록 한자(예: 旅行)의 개수를 늘리고 받침이 까다로운 한글(예: 하

늘이 맑고 높다)을 적절히 배치하여 난이도와 수행 시간을 조절하였다. 또한 연필을 한 개만 깎아놓고 회전식 연필깎이와 지우개를 주어 어머니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하였다.

어머니는 유아와 함께 관찰실을 방문하여 연구자로부터 실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뒤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짧은 설문을 하였다. 연구자가 관찰실을 나간 뒤 실험이 시작되면 유아와 어머니는 책상에 마주 앉아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유아가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유아를 자유롭게 지도하였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15분 이내에 과제를 마쳤으며 실제 수행 시간의 범위는 12분에서 23분까지였다. 수행 시간이 길어지면 유아의 주의 분산이나 지루함이 증가하여 과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초과한 경우에도 처음 15분만의 분량을 코딩하였다. 과제 수행이 끝난 후에는 어머니와 책을 읽거나 자유 놀이를 하였으며 실험 과정 종료 후 어머니에게 선물금을 전달하였다.

3) 연구 변인의 코딩

본 연구에서 관찰된 각 변인들의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통제 행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통제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Dixon, LeVine, Richman, & Brazelton, 1984; Kochanska & Aksan, 1995)에서 제시된 준거를 연구자가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통제 행동'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어머니 행동 전체를 언급한다. 모자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통제 행동은 언어적 또는 비언

어적 영역 내에서 간섭, 지시, 격려, 도움, 비계 설정, 애정 표현, 무시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너무 세부적인 분류에서는 준거 행동이 충분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를 고려하여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기준으로 격려, 도움, 비계 설정, 애정표현 등을 한 범주로, 간섭, 지시 등을 다른 범주로 묶어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분류 형태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와 어머니 3쌍을 대상으로 한 예비실험에서 10분 동안의 상호작용 동안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간섭과 지시, 격려였으며 거부와 비계 설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지시는 언어적 형태로, 간섭은 행동적 형태로 나타났다. 예비 실험 결과를 기초로 어머니의 통제 행동을 유아의 과제를 돕고 격려하는 '지지'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를 포함하는 '강압적 규제'의 두 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언어사용 여부를 한 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언어적 규제, 비언어적 규제, 언어적 지지, 비언어적 지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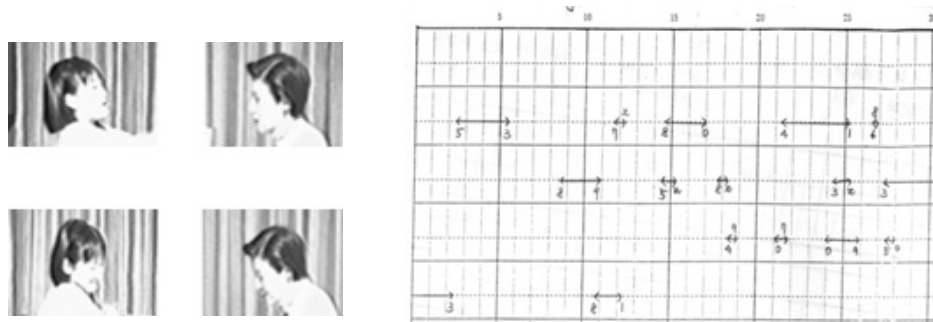
각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언어적 규제는 유아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두지 않고 불필요한 경우에도 구두로 개입하는 행동이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기(예: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해, 거기 글자가 틀렸어)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비언어적 규제는 행동으로 유아를 제어하는 행위로 유아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을 때 다시 의자를 빼고 앉게 하거나 글자가 틀린 부분을 어머니가 임의로 지우는 행동을 포함한다. 셋째, 언어적 지지는 유아의 수행을 격려하거나(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유아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적으로 단서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이거랑 이게 어디가 다를까?).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지지는 유아의 어

개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안아주고 머리를 쓸어주는 격려 행위, 유아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도와주는 행위를 언급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과제 수행 시간을 20초 단위로 나누고 최대 45개의 분석 단위 각각에서 준거 행동이 관찰된 경우에 1점을 주었다. 한 단위 동안 행동이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나타난 경우 각각 1점을 주었고 두 종류 이상의 행동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는 중복 코딩하였다. 각 행동별 점수 합계를 개인의 전체 단위 수(35~45)로 나누어 개인 점수를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이 더 자주 관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규제가 총 4회 관찰되었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출현 빈도가 낮고 비언어적 행동에 언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언어적 규제와 비언어적 규제를 합하여 한 범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통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강압적 규제, 언어적 지지, 비언어적 지지의 세 범주를 사용하였다.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3개 케이스에 대해 대학원 교육을 받은 두 명의 코더가 평정하고 두 번으로 나누어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100% 일치인 1을 기준으로 .80과 .89의 일치율을 보였다.

(2) 아동의 정서

실험 상황에서 관찰된 아동의 정서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두 가지 차원에서 코딩하였다. 어린 유아의 경우 일차 정서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성인보다 많기 때문에 선행 연구자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Laible & Thompson, 1998)은 어린 유아들의 정서를 '긍정 혹은 부정'의 정서 영역(valence of emotion)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실험실 상황에서는 일상에서보다 다양한



〈Figure 2〉 Coding of eye-contact

정서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정서의 종류를 세분화 하지 않고 긍정적 vs. 부정적 정서의 두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미소와 웃음을 수반하는 즐거움과 기분 좋음, 신기함이나 호기심, 자랑스러움(예: 이거랑 진짜 똑같이 했어)을 모두 긍정적 정서로 코딩하였으며 짜증, 신경질(예: 자꾸 틀리니까 그러잖아), 화남, 지루함, 칭얼거리는 스트레스 반응을 부정적 정서로 코딩하였다. 어머니 코딩과 같은 방식으로 한 단위동안 나타난 행동과 중복 코딩을 적용하여 1점씩 주었으며, 전체 점수 합계를 개인의 총 단위 수로 나누어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13케이스에 대해 두 명의 코더가 평정한 일치도는 .80이었다.

(3) 모자 간 눈 맞춤

연구자와 IT관련 보조자가 녹화한 화면을 컴퓨터로 재생시키고 타이머와 화면 확대 줌 기능, 슬로우 모션 서치가 가능한 조그 셔틀(jog-shuttle) 다이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유아와 어머니가 눈 맞춤을 시작한 시작부터 종료 시간까지를 1/10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눈 맞춤은 유아가 먼저 쳐다보는 경우와 어머니가 먼저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으나, 유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유아를 쳐다보며 눈 맞춤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눈 맞춤 시작 시간은 어머니가 쳐다보는 시선에 유아가 눈을 맞추는 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둘 중 한사람의 시선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시간을 종료 시간으로 보았다. 눈 맞춤은 눈을 깜빡임에 따라 짧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머리와 시선을 고정한 채 눈을 깜빡이는 경우는 눈 맞춤의 연속으로 보았다. 또한 유아와 어머니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응시나 시선 이동은 눈 맞춤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측정된 눈 맞춤은 Figure 2와 같이, 1줄이 1분, 1칸이 1초를 표시하는 코딩지에 표시하고 3분 7초 06~3분 9초 02와 같이 숫자를 따로 기록하였다. 수행 시간 동안 초단위로 계산된 눈 맞춤 시간 전체합의 비율을 구하여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눈 맞춤을 더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상관을 구하여 변인들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눈 맞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예측변인(어머니의 강압적 규제, 언어적 지지, 비언어적지지)과 조절변인(눈 맞춤)을,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에 조절변인을 곁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연속 변인을 곁하였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값(z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을 때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조절변인의 평균에서 표준편차가 ±1인 경우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회귀식을 계산하고 기울기를 추정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자료 코딩과 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어머니의 통제 행동, 모자 간 눈 맞춤, 아동의 정서 간의 관계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Table 1에 나타나있다.

이를 바탕으로 Table 2에 제시된 상관 분석 결과는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Table 2에 따르면 어머니의 강압적 규제($r = .33, p < .01$)와 언어적 지지($r = .31, p < .05$)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비언어적 지지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38, p < .01$). 이러한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 = 66)

Variable	Boy(n = 38)	Girl(n = 28)	Total(n = 66)
	M(SD)	M(SD)	M(SD)
Mothers' coercive control	.40(.28)	.31(.20)	.36(.25)
Mothers' verbal support	.38(.27)	.27(.24)	.33(.26)
Mothers' nonverbal support	.13(.12)	.10(.10)	.12(.11)
Eye contact	28.85(45.69)	15.61(23.93)	23.24(38.34)
Children's positive emotion	.21(.16)	.24(.19)	.22(.18)
Children's negative emotion	.04(.10)	.02(.06)	.03(.09)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eye-contact, mothers' control behaviors and children's emotion (N = 66)

Variable	1	2	3	4	5
1. Mothers' coercive control	-				
2. Mothers' verbal support	.63***	-			
3. Mothers nonverbal support	.06	-.10	-		
4. Eye-contact	.04	.06	.38**	-	
5. Children's positive emotion	.03	-.17	.38**	.21	-
6. Children's negative emotion	.33**	.31*	.17	.37**	-.04

* $p < .05$. ** $p < .01$. *** $p < .001$.

결과는 어머니가 강압적 규제나 언어적 지지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반면, 어머니의 비언어적인 지지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더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어머니의 비언어적 지지는 눈 맞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r = .38, p < .01$) 비언어적 지지를 많이 한 어머니가 눈 맞춤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눈 맞춤은 유아의 부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37, p < .01$).

2. 어머니의 통제 행동과 유아의 정서 간의 관계에 대한 눈 맞춤의 조절효과 분석

모자 간 눈 맞춤이 어머니의 통제 행동과 유아의 정서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95 이하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고 VIF값을 구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두 4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각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눈 맞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나있다.

긍정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한 Table 3을 살펴보면, Model 1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 전체 변량의 18%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비언어적 지지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 p < .05$). Model 2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전체 설명력이 9% 증가하였으나 세 개의 상호작용 항 중에서 어머니의 언어적지지 × 눈 맞춤 만이 유의하였다($\beta = .33, p < .01$).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우선 언어적지지, 눈 맞춤, 언어적 지지와 눈 맞춤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회귀식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표준편차 ±1인 점을 기준으로 조절변인인 눈 맞춤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언어적 지지와 긍정적 정서의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눈 맞춤이 높은 집단($SD = 1$)에서는 $y = .121 + 067x$, 낮은 집단

〈Table 3〉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ye-contac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behaviors and children's positive emotion ($N = 66$)

Predictor variables	Model 1		Model 2		VIF
	β	t	β	t	
Mothers' coercive control	.16	1.06	.10	.72	1.72
Mothers' verbal support	-.25	-1.63	-.24	-1.62	1.74
Mothers' nonverbal support	.30	2.37*	.39	3.10**	1.23
Eye-contact	.10	.76	-.04	-.32	1.19
Coercive control × Eye-contact			.11	.74	2.00
Verbal support × Eye-contact			.33	2.72**	1.89
Nonverbal support × Eye-contact			-.26	-1.32	3.68
$R^2_{change}(R^2)$.18(.18)		.09(.27)		
$F_{change}(F)$	3.37*(3.37*)		7.37**(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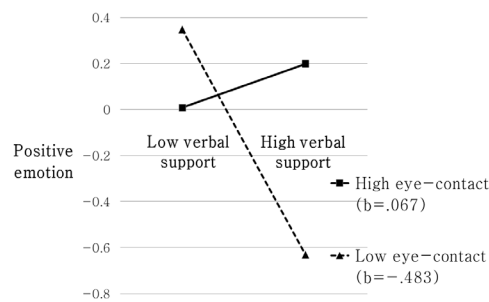
* $p < .05$. ** $p < .01$.

〈Table 4〉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ye-contac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behaviors and children's negative emotion (N = 66)

Predictor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β	t
Mothers' coercive control	.21	1.44	.31	2.81**
Mothers' verbal support	.16	1.08	.15	1.04
Mothers' nonverbal support	.04	.31	.01	.09
Eye-contact	.34	2.78**	.36	3.23**
Coercive control × Eye-contact			.18	1.56
Verbal support × Eye-contact			.17	1.45
Nonverbal support × Eye-contact			.01	.05
$R^2_{change}(R^2)$.25(.25)		.04(.29)	
$F_{change}(F)$	4.99**(4.99**)		1.18(3.39**)	

**p < .01.

(SD = -1)에서는 $y = -.151 - .483x$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과 같이 눈 맞춤이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가 유아의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인 반면($b = .067$), 눈 맞춤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b = -.483$). 눈 맞춤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가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으나 눈 맞춤이 낮은 경우에는



〈Figure 3〉 Interaction between eye-contact and mother's verbal support on children's positive emotion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가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Table 4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Model 1과 2에서 눈 맞춤($\beta = .34$, $p < .01$)과 어머니의 강압적 규제($\beta = .31$, $p < .01$)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3. 후속 분석: 눈 맞춤을 수반한 어머니의 통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비교

앞서 어머니 통제 행동과 유아의 정서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눈 맞춤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눈 맞춤의 역할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관찰된 어머니의 행동 중에서 눈 맞춤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

<Table 5>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he influence of mothers' behaviors with and without eye-contact on children's emotion (N = 66)

Criterion variable	Predictor variables	β	t	R^2	F
Positive emotion	Mothers' coercive control with eye-contact	.22	1.72	.06	2.05
	Mothers' coercive control without eye-contact	-.18	-1.45		
	Mothers' verbal support with eye-contact	.14	1.14	.11	3.81*
	Mothers' verbal support without eye-contact	-.22	-1.72		
	Mothers' nonverbal support with eye-contact	.27	2.26*	.13	4.70*
	Mothers' nonverbal support without eye-contact	.18	1.45		
Negative emotion	Mothers' coercive control with eye-contact	.48	4.23***	.23	9.53**
	Mothers' coercive control without eye-contact	.01	.06		
	Mothers' verbal support with eye-contact	.45	3.93***	.21	8.14**
	Mothers' verbal support without eye-contact	.01	.09		
	Mothers' nonverbal support with eye-contact	.13	1.00	.03	1.12
	Mothers' nonverbal support without eye-contact	.11	.83		

* $p < .05$. ** $p < .01$. *** $p < .001$.

분하여 새롭게 코딩하고 비율을 구하였다. 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5에 나타나있다.

Table 5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눈 맞춤을 수반한 어머니의 통제 행동이 그렇지 않은 행동보다 유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눈 맞춤을 수반한 어머니의 비언어적 지지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beta = .27, p < .05$) 눈 맞춤이 없는 비언어적 지지는 유아의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아이와 눈을 맞추며 격려나 지지를 하였을 때만 유아가 긍정적 정서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눈 맞춤을 수반한 어머니의 강압적 규제($\beta = .48, p < .001$)와 언어적 지지($\beta = .45, p < .001$)가 유의

한 영향을 미친 반면, 눈 맞춤이 없는 행동들의 영향력은 정적 정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격려하는 말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눈 맞춤을 할 때에만 유아에게 영향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자 간 눈 맞춤이 어머니의 통제 행동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며 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비언어적 지지가 유아의 긍정적 정서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이

는 어머니가 비언어적 지지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 분석에서 비언어적 지지를 많이 보인 어머니가 눈 맞춤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눈 맞춤과 유아의 긍정적 정서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비언어적 지지는 눈 맞춤이 없어도 유아의 긍정적 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비언어적 지지는 유아를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애정적 행위를 포함하므로 이러한 행위들을 보였을 때 유아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학자들(Iverson et al., 1999; Lee & Kim, 2013; Park, 1997)은 모자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의사전달의 많은 부분이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왔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비언어적 행동의 정서 전달 기능을 보여준다.

둘째, 유아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언어적 지지와 눈 맞춤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눈 맞춤의 조절 효과가 지지되었다. 눈 맞춤이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가 유아의 긍정적 정서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그 영향력은 미비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눈 맞춤이 낮은 집단에서는 어머니가 언어적 지지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어머니가 자녀의 과제수행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때 눈 맞춤이 이를 강화하여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언어적 지지라도 눈 맞춤이 적은 경우에는 도리어 자녀의 긍정적 정서를 저해한다는 데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지지가 유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다

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는 일방적인 지시와는 달리 ‘잘하는데 뭐. 조금만 더 하자’, ‘이것만 다하면 집에 가는 거야’와 같이 유아를 격려하고 달래는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분석 단계에서도 코더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가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잔소리와 간섭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머니의 행동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아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와 잔소리의 차이는 모호할 수 있으며 같은 언급이라도 맥락이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00는 잘할 수 있어’가 유아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과제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켜 불유쾌한 정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어떤 언급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격려라 할지라도 유아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Punamäki, Qouta와 Sarraj(1997)는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트라우마를 겪은 상황에서도 심리적 적응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모자 상호작용이나 어머니 행동 분석에서 상호 수용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결과는 유아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유아의 기분과 능력,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고 아이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눈 맞춤이나 제스처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어머니의 강압적 규제와 눈 맞춤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각각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강압적인 규제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 행동이 자녀에게 짜증이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Eisenberg & Fabes, 1994; Vitaro et al.,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자 간 눈 맞춤이 많을수록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 눈 맞춤은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게 친밀감 혹은 불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정서와 관련 없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Hamlet et al., 1984; Kleinke, 1986). 본 연구가 과제 수행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유아들이 즐거움이나 애정을 경험하기 보다는 과제를 완수하는데 책임과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이 눈 맞춤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눈 맞춤을 수반한 어머니의 통제 행동만이 유아의 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유아와 눈을 맞추며 행동하는 경우와 눈을 맞추지 않고 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눈 맞춤을 수반한 비언어적 지시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를, 눈 맞춤을 수반한 어머니의 강압적 규제와 언어적 지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반면, 눈을 맞추지 않은 어머니의 행동은 유아의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유아의 행동을 강압적으로 규제하거나 간섭하는 경우에도 눈을 맞추며 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아나 아동에게 어떤 것을 지시할 때 눈 맞춤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Everett et al., 2005; Furrow, 1984; Iverson et al., 1999)에서 보고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눈 맞춤이 언어적 의미를 강화하거나 확장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눈 맞춤이 어머니 통제 행동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 강화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Kleinke(1986)는 눈 맞춤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상호작용 하려는 동기를 높인다고 하였는데 모자 상호작용에서도 눈 맞춤을 하는 경우, 유아와 상호작용 하려는 어머니의 동기가 더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눈 맞춤이 정서적 각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Helminen et al., 2011) 눈 맞춤을 할 때 정서적 교류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눈 맞춤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Kleinke, 1986) 언어적 자극과 수반될 때 어떤 의미인지가 더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 눈동자는 동공의 크기나 시각의 방향으로 다양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눈 맞춤은 독자적으로 어머니의 의도나 생각을 어린 유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그러나 눈 맞춤이 다른 통제 행동들과 함께 제시될 때 모자 간 의사소통의 의미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육과 훈육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녀와 대화하면서 눈 맞춤을 하는 경우, 어머니가 전달하려는 의도나 애정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반대로 눈을 보지 않거나 유아의 주위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

는 것이 효과가 없음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면대면 상황에서 눈 맞춤의 역할을 살펴본 반면 어머니와 유아가 병렬식으로 앉아 얼굴을 보지 않고 상호작용하거나 원거리 통화와 같이 청각적 수단으로만 상호작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살피지 못하였다. 현재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기기가 모자 상호작용의 매개물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눈 맞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눈 맞춤을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가 어머니에게 눈 맞춤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가 시작한 눈 맞춤의 기능과 의미는 어머니의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와 언어적 간섭의 차이를 좀 더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언어적 지지는 강압적이지 않고 애정적인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유아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더 정교한 수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눈 맞춤 분석의 기술적 제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위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눈 움직임을 상세히 감지할 수 있는 실험 기기와 눈 추적 장치(eye tracker)가 보급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References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 Sage.

Ahn, I. S. (2013). The study of semantic reinforcement in non-verbal communication. *Korean Literature*, 54, 51-74.

Benenson, J. F., Morash, D., & Petrakos, H. (1998).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closeness between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Sex Roles*, 38, 975-985.

Brunet, P. M., Mondlock, C. J., & Schmidt, L. A. (2010). Shy children are less sensitive to some cues to facial recognit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1, 1-14.

Denham, S.,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Dixon, S. D., LeVine, A. R., Richman, A., & Brazelton, T. B. (1984). Mother-child interaction around a teaching task: An African-American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5, 1252-1264.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Everett, G. E., Olmi, D. J., Edwards, R. P., & Tingstrom, D. H. (2005) The contributions of eye contact and contingent praise to effective instruction delivery in compliance training.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8(1), 48-62.

- Furrow, D. (1984). Social and private speech at two years. *Child Development, 55*, 355-362.
- Goldman, M., & Fordyce, J. (1983). Prosocial behavior as affected by eye contact, touch, and voice express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1*(1), 125-129.
- Hamlet, C. C., Axelrod, S., & Kuerschner, S. (1984). Eye contact as an antecedent to complian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7*, 553-557.
- Helminen, T. M., Kaasinen, S. M., & Hietanen, J. K. (2011). Eye contact and arousal: The effects of stimulus duration. *Biological Psychology, 88*, 124-130.
- Iverson, J. M., Capirci, O., Longobardi, E., & Caselli, M. C. (1999). Gesturing in mother-child interactions. *Cognitive Development, 14*, 57-75.
- Kleinke, C. L. (1986). Gaze and eye contact: A research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0*(1), 78-100.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Lee, K. S., Kim, H. J., & Park, E. H. (2004). The interaction strategies of mothers and children in the contexts of free play and joint problem solv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4), 33-48.
- Lee, Y. S., & Kim, M. S. (2013). The relationships among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maternal verbal behaviors and the infants' acquisition of vocabular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2), 1-25.
- Liable, D. J., & Thompson, R. A. (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038-1045.
- Lohaus, A., Keller, H., & Voelker, S. (2001). Relationships between eye contact,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cry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6), 542-548.
- Park, W. (1997). A case study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ha Education Research, 3*, 259-279.
- Podrouzek, W., & Furrow, D. (1988). Preschoolers' use of eye contact while speaking: The influences of sex, age, and conversational partner.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7*(2), 89-98.
- Punamäki, R. L., Qouta, S., & Sarraj, E. (1997). Models of traumatic experience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roles of perceived parenting and the children's own resources and activity. *Child Development, 68*(4), 718-728.
- Senju, A., & Johnson, M. H. (2009). The eye-contact effect: Mechanism and development.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 127-134.
- Sogon, S. (1993). *The development of affective communication of children and mothers' styles of emotion expression*. Research Report of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Osaka Gakuin University.
- Vida, M. D., & Maurer, D. (2012). The development of fine-grained sensitivity to eye contact after 6 years of ag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2*, 243-256.

Vitaro, F., Barker, E. D., Boivin, M., Brendgen, M., & Tremblay, R. E. (2006). Do early difficult temperament and harsh parenting differentially predict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5),

681-691.

Wolff, M. S., &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 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Received July 31, 2014

Revision received October 20, 2014

Accepted October 22, 2014